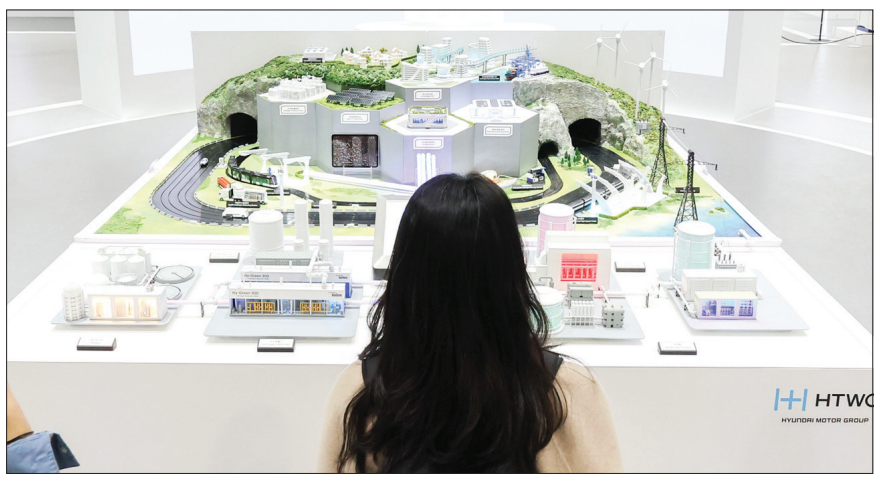
현대차그룹, 미래 수소도시 '디오라마' 공개

WHE 2026

수소 생태계 사례·활용방안 소개
디오라마, 재생에너지·AI 등 연계
업계 "정책적 지원 필요한 상황"



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한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 2026를 찾은 관람객이 현대자동차그룹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현대자동차그룹이 수소의 생산부터 저장·운송, 활용까지 연결한 미래 도시와 산업 모델을 공개하며 생태계 중심의 수소 산업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WHE) 2026'에서 수소 생태계의 구현 사례와 활용 방안을 소개한다고 5일 밝혔다.

전시관에는 수소 생산시설과 저장·공급 설비, 수소전기차·철도차량 등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한 '수소 도시 디오라마'를 마련했다.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로봇 제조공장, 수전해 시설이 연계된 미래 도시의 모습을 축소 모형으로 구현했다.

영상 전시에서는 ▲새만금 AI 밸리 ▲도시 생활 ▲항만 물류 ▲제조 산업 등 4개 수소 생태계 시나리오를 선보였다.

새만금 AI 밸리에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수소를 지역 전력과 열, 모빌리티 연료로 사용하는 구상을 담았다. 도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기물로 생산한 수소를 주거단지와 버스·승용차·트램에 공급하는 자원순환 구조를 제시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7월 준공한 'HTWO 에너지 청주'에서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하루 500㎏ 규모의 수소를 생산하고, 현장 차량 충전과 인근 지역 공급을 연계하고 있다.

항만 물류 시나리오는 수소를 무인운반차와 트럭, 철도차량에 공급해 항만 안팎의 운송수단을 연결한다. 제조 분야에서는 수소를 철강 생산의 환원제와 열원으로 활용하고 완성차 공장의 지게차와 버너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현대차그룹은 수소산업의 경쟁이 개별 제품과 기술에서 생산·운송·인프라·수요처를 아우르는 생태계 단위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도 청정수소 생산과 공급망 구축, 산업 수요 창출을 연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수소산업은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높아 생태계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한국수소연합의 '2025년 수소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수소기업은 2932개, 종사자는 3만6264명으로 집계됐다. 기업의 85%는 중소·중견기업이다.

연구개발(R&D) 전담 부서가 없는 수소기업은 82.7%에 달했다. 수소산업 투자액도 2022년 4조1469억원에서 2024년 4조3373억원으로 4.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수소업계 관계자는 "수소산업의 경쟁축이 개별 기술과 제품에서 생태계로 이동하면서 생태계 경쟁력이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좌우할 것"이라며 "국내에서도 대·중·소기업의 협력과 수요·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혁 기자 sh95@metroseoul.co.kr

GS, 3분기 실적개선
매출 7.2조, 영업익 1.2조

GS가 정제마진 강세와 윤활유·발전 부문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3분기 실적 개선을 이뤘다.

GS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7조2706억원, 영업이익 1조2748억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24%, 46.43%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680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89% 늘었다.

올해 3분기 누계 기준 매출은 21조5260억원, 영업이익은 4조250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누계와 비교해 매출은 15.13%, 영업이익은 96.80% 증가했다. 누계 당기순이익은 2조639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5.08% 늘었다.

사업 부문별로는 석유화학 부문이 납사가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적자를 이어갔다. 반면 윤활유 부문은 글로벌 공급 차질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으며 발전 부문도 계절적 성수기 진입과 전력도매가격(SMP) 상승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개선됐다.

4분기에는 중동 정세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과 원유 수송 운임 상승이 주요 실적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원관희 기자

한화에어로, 천무 유도미사일 폴란드 생산공장 착공

2030년 양산 전망… 폴란드 군 조달
현지 생산기반 유럽 방산시장 공략



지난 4일 폴란드 고주프 비엘코폴스키에서 열린 천무 유도미사일 생산공장 착공식에서 한국과 폴란드 양국 정부·군 및 방산업계 주요 관계자들이 시삽을 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에 사거리 80㎞급 천무 유도미사일을 생산할 공장을 착공했다. K9 자주포와 천무 수출에 이어 미사일 현지 생산으로 폴란드와의 협력 폭이 넓어지면서 유럽 방산시장 공략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일(현지시간) 폴란드 고주프 비엘코폴스키(Gorzow Wielkopolski)에서 폴란드 WB그룹과 설립한 합작법인 HWBAS(Hanwha WB Advanced Systems)의 유도미사일 생산공장 착공식을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건설되는 공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해외에 짓는 첫 유도미사일 생산시설로, 약 116만㎡ 부지에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지어진다.

공장이 완공되면 폴란드형 천무 '호마르-K(HOMAR-K)'에 탑재되는 사거리 80㎞급 유도미사일(CGR-080)을 생산하게 된다. 생산설비 구축과 기술이전, 시험·인증을 거쳐 2029년 말 초도 생산에 들어가고 2030년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폴란드군은 필요한 유도미사일을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HWBAS는 2025년 9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51%, WB그룹 자회사 WB일렉트로닉스가 49%를 출자하는 조건으로 설립 계약을 맺은 합작법인이다. 이후 폴란드 군비청과 CGR-080 현지 생산·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HWBAS와 맺은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유도미사일 생산기술과 노하우를 이전할 예정이다.

현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장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200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생기고 현지 부품·소재 조달과 협력업체 공급망이 확대되면서 폴란드 지역경제와 방위산업 생태계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관희 기자 wkh@

한화오션-ABB
FDC 기술개발 '맞손'

한화오션이 글로벌 전기화·자동화 기업 ABB와 손잡고 부유식 데이터센터(FDC) 핵심 기술 개발에 나선다.

한화오션은 ABB와 부유식 데이터센터의 전력·제어 시스템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한화오션의 해양설비 설계·건조 기술과 ABB의 데이터센터 전력 솔루션 역량을 결합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2027년 5월까지 부유식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운영 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을 진행한다. 전력 시스템 설계를 검토하고 발전 설비와 전력 시스템을 연계한 운영·제어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삼성, 미래기술육성사업 우수 연구자 선정

애뉴얼 포럼 개최… 450명 참석

삼성전자가 14년간 1조2000억원을 투입해 온 기초과학·미래기술 연구 지원사업에서 우수 연구자 10명을 처음 선정했다. 지원 과제에서 코스닥 상장사와 스타트업이 나온 가운데, 삼성은 수상자에게 후속 연구와 창업 멘토링을 지원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5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파르나스에서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2026 애뉴얼 포럼'을 열고 우수 연구자 10명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2014년 시작돼 지난해부터 외부에 공개되고 있으며, 이날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과 여야 의원 4명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은 2013년 시작한 민간 주도형 R&D 지원사업이다. 삼성은 당시 10년간 1조5000억원을 출연하기로 하고 기초과학과 소재, ICT 분야 연구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916개 과제가 지원을 받았고, 연구 인력 1만 7000여 명이 참여했다.

우수 연구자는 지원이 끝난 과제 644개를 대상으로 뽑았다. 연구 우수성과 성과 확장성, 산업계 파급력 등을 종합 평가해 분야별로 1명씩 선정했으며, 석학으로 꾸린 심사위원단이 약 4개월간 심사했다. 기초과학 분야 4명, 소재·ICT 분야 6명이 이름을 올렸다.

박홍근 삼성전자 SAIT 원장은 "연구 단계에 그치지 않고 스타트업 창출로도 이어졌다"며 "이러한 사업의 방향이 학계와 산업계 모두에게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믿어왔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구 차관도 과학기술인이 국가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를 주도하는 주체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LS그룹, 금속 원자재 조달·가공 사업 통합

통합법인 'LS메탈플러스' 재편

LS그룹이 계열사별로 나뉘어 있던 금속 원자재 조달과 가공 사업을 하나로 합친다. 금속 트레이딩 계열사 LS글로벌이 LS일렉트릭 자회사 LS메탈의 동관·스테인리스 가공 사업을 인수해 통합법인 'LS메탈플러스'로 재편한다. 원자재 구매부터 생산과 판매까지 한 회사가 맡게 되면서 원가 경쟁력과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LS는 자회사 LS글로벌이 LS메탈의 동관 및 스테인리스 가공 사업을 양수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사업 연관성이 높은 계열사를 결합해 그룹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주가치를 높이려는 취지다. 통합법인은 오는 12월 LS글로벌 임시주주총회에서 상호변경 승인을 거쳐 2027년 1월 1일 공식 출범한다.

2005년 설립된 LS글로벌은 그동안 전기동 등 금속 원자재의 조달과 트레이딩을 해왔다. 여기에 2010년 LS일렉트릭 금속사업부문에서 분할된 LS메탈의 동관·스테인리스 강관 생산 역량이 더해지면서 조달부터 가공과 판매까지 아우르는 종합 금속 가공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게 된다. 통합법인은 전기동을 통합 구매해 협상력을 높이고 재고 운영과 동 선물·헤지(Hedge) 거래도 일원화할 예정이다.

사업을 넘긴 LS일렉트릭은 확보한 재원을 전력 인프라 투자에 투입한다. 전력 슈퍼사이클에 대응해 생산능력(CAPA)을 늘리고 핵심 인프라 사업을 확대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외부 차입에 대한 의존도도 낮출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지주회사인 ㈜LS는 LS글로벌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약 1,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키로 했다. ㈜LS는 매출 약 1조3000억원, 자산 약 1조원 규모의 LS메탈플러스를 그룹의 금속 트레이딩 및 가공 핵심 플랫폼으로 키워 주주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

삼성디스플레이
QD-OLED 마케팅 강화

삼성디스플레이가 국내 PC방에 해당하는 중국 인터넷 카페에서 QD-OLED 모니터 체험 마케팅을 강화한다. 현지 주요 판매처인 PC방을 거점으로 게이머들에게 제품 성능을 알리고 프리미엄 모니터 시장 공략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에이수스(ASUS) 등 6개 모니터 브랜드와 협력해 중국 인터넷 카페에 퀀텀닷 유기발광다이오드(QD-OLED) 체험 매장을 조성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까지 베이징·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서 10곳을 조성했으며 연말까지 6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체험 매장은 QD-OLED 모니터를 30대 이상 설치한 PC방 중에서 선정한다. 선정된 매장에는 QD-OLED 로고가 새겨진 간판과 홍보물을 지원한다. 삼성디스플레이에 따르면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중국 PC방과 협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남영 기자